광주 건축문화 한 눈에…건축도시문화제 인기

시 '걷고 싶은 거리-가로경관' 주제 14일까지 시청 시민홀
우수건축가 작품전 등…건축문화 대중화·정보교류장 조성

광주 건축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광주시 건축도시문화제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진행 중이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등 광주지역 건축단체 3곳의 연합체다.

광주시와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시민에게 건축에 대한 바른 이해·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문화의 대중화, 건축전문가들 정보교류·화합의 축제 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도시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건축도시 산책: 걷고 싶은 거리-가로경관'을 주제로,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 조성 계획 등을 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문화제 기간 동안 광주건축사회 '제28회 광주시건축상', 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광주·전남건축가회 '우수건축가 작품전' 등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문화제에선 '2024년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을 선정하고, 시민 대상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수상작, 사진공모전 수상작, 국내외 우수건축가 등 다양한 작품과 모형 등도 전시하고 있다.

미래의 도시건축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광주·전남 건축전공학생들의 '교내 작품전 우수 작품'과 '전국 건축문화상 우수작품' 전시회도 인기 콘텐츠 중 하나다.

여기에 건축 관련 각종 민원을 무료로 상담하는 건축 민원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부터 광주만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행 중인 '광주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등도 전시 중인데, 건축에 관심 있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지역건축인들의 건축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공감하며 볼거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이번 건축도시문화제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2025년 농업교육 수요조사

광주농업기술센터 10월18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0월 18일까지 '2025년도 농업교육 수요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농업 교육과정 개설에 앞서 현장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온라인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광주농업기술센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gwangju.go.kr/agri/) QR코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수요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무등도서관, 9일~10월 14일 휴관…통합 이전공사

종합·디지털자료실 등 예약도서·대출반납 일시 중단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의 통합 이전 공사로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디지털자료실(1층)을 종합자료실(2층)로 통합 이전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 및 전자(디지털)서비스를 야간(오후 6시~10시)에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자료실 이전에 따른 빈공간은 이용자 휴게공간으로 새롭게 꾸민다. 휴관 기간에는 도서 대출반납, 예약도서 등의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단, 전자도서관, 이동도서관, 무인반납기, 책나래(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kr/)과 무등도서관 종합자료실(062-613-7717)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자료정보의 통합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자료실 통합 이전 공사를 진행한다"며 "공간을 재구성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독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송편 만들기 행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오색 송편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세대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50세대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시 "생명나눔문화 동참해 주세요"

장기기증 '희망의 씨앗 캠페인'
기증희망 등록 '전국의 2.3%'
상담·홍보 통해 나눔 중요성 알려

광주시가 생명나눔 주간(9~15일)을 앞두고 지난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생명나눔 주간'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 간으로 지정됐다.

'희망의 씨앗 캠페인'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한국생명사랑재단 등 민·관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인식 개선과 관심을 높이고자 '광주메디뷰티산업전'과 연계해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등 생명 자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는 의미의 '희망의 씨앗' 상징물을 활용해 생명나눔문화 동참 리플릿·현수막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상담 등의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는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생명나눔 주간 동안 ▲기증희망등록 상담 ▲희망의씨앗 장식 달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생명나눔 콘텐츠 홍보 등을 이어간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언제나 가능하며 기증 희망 의사가 있는 경우 등록기관 방문(신분증 지참),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뇌사장기기증자는 483명으로 2022년 405명보다 78명 증가했지만, 이식 대기자 4만34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는 2022년 기준 4만2084명으로, 전국 180만7192명 대비 2.3%에 그치고 있다.

배강숙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나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024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모

20일까지 접수 5명 이내 선정…자금지원 확대·세무조사 유예 혜택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4년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근거해 시상하는 이 상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53명의 기업인이 수상했으며, 올해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평가를 비롯한 근로자 복지증진, 지역사회 공헌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평가항목에 ESG경영 준비 항목도 신설했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추가 보전(2%→3%), 구조고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0%),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힘겨운 경제 상황에도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